

2014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2. e-journal

# Korean Journal of Urology

## 경험

---

박 광 성  
(Korean Journal of Urology, 편집위원장)

## e-Journal: Korean Journal of Urology 경험

Korean Journal of Urology 편집위원장 **박 광 성** 교수

2012년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지가 종이판을 창간 80년만에 폐간하고 온라인 단일판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는 신문이나 주간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쇄판을 중시하던 의학학술지 영역에서도 미래의 온라인판 시장의 활성화를 예견한 사건이었다.

e-Journal의 중요성은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 참고문헌을 찾는 경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도서관에서 프린트본을 복사해서 보거나 Ovid/Medline을 통해서 논문을 찾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google scholar, pubmed, synapse 등의 검색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이용한 검색으로 학술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독자의 needs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편협 학회 회원들과 e-Journal의 발행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의 공식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Urology (KJU)는 2009년부터 매달 영문으로 발행을 하여 Pubmed, PMC 등 중요 국제검색시스템에 등재되면서 비뇨기과영역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학술지를 목표로 e-Journal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세웠다.

e-Journal은 인터넷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주소가 중요하다. 가능하면 외우기 쉽고 간단한 것이 좋은데 비뇨기과영역에서는 미국비뇨기과학지의 홈페이지가 jurology.com으로 잘 알려져 있어 앞에 k자만 추가하여 kjuurology.com으로 하였는데 기관발행이라서 kjuurology.org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회가 학술지를 운영하고 있어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술지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자의 영역을 독자영역을 국내외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독자적인 홈페이지 및 주소가 필요하다.

10년전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서 마법의 신문에서 사진이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은 인터넷 신문에서 보편화된 기술이 되었다. KJU는 이 기술을 2013년 초부터 도입을 했는데 학술지 프린트본에서는 QR code를 이용했고 e-Journal 에서는 YouTube를 이용해서 활성화하였다. 현재는 video clip 이 있는 논문을 게재할 수 있어 새로운 수술법이나 내시경적수술 장면을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PC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Journal은 프린트본에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사항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영문학술지에서는 게재할 수 없는 한글판 설문지나 보조자료를 Supplementary materials의 항목으로 QR code를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CrossMark, ORCID, FundRef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Journal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술지 편집진과 독자가 interactive communication 이 가능하다. KJU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출판되는 논문 중 3편을 선정하여 소개를 하고 Reviewer of the Month를 통해 최근에 매달 best reviewer를 선정하여 사진과 함께 프로필을 소개해 줌으로서 국내외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달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Video Interview with Author를 통해 저자가 직접 논문을 독자에게 presentation을 함으로서 논문에 대한 흥미를 끌게 하고 SNS 를 통해 연구결과를 홍보할 수 있게 하였다.

학회의 공식학술지가 영문으로 발행되면서 일부 회원들이 국문으로 된 학술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문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Author Summary in Korean 의 창을 만들어 1장 정도의 분량으로 국문으로 논문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google translation을 이용하여 논문의 전문을 국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e-Journal은 홈페이지를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Most cited articles 등을 통해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서 몇 번 인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고 Most read articles 은 Pubmed를 이용하여 얼마나 논문이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의 활동상황이나 학술지의 변화, 정책 등도 KJU Today를 통해 공지 함으로서 편집진이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을 마련하고 있다.

e-Journal 의 발전과 더불어 online submission system도 개선되고 있는데 출판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JU는 2013년도부터 투고된 모든 논문을 CrossCheck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성 여부를 중복성 여부를 screening 하고 있으며 중복성이 발견될 경우 자료를 교신저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서 출판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e-Journal은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contents가 개발되면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의 결과가 최대한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구결과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